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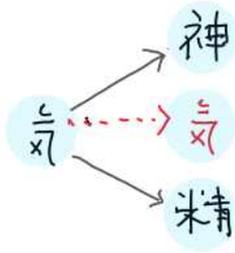
[2] 정기신과 존재와 좌표

1. 정기신(精氣神)

(1) 기(氣)

기, 내 몸 안으로 들어온 자연

서로 다른 개념을 지닌 정·기·신은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하나로 합쳐지고 다시 셋으로 나뉜다. 정·기·신은 본래 하나의 【 】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동의보감, 양생과 치유의 인문의학, 78쪽)



기는 정과 신의 근본이다(氣爲精神之根) 이동원李東垣은 “기氣는 신神의 조상이고, 정精은 기의 자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는 정과 신의 뿌리다.”라고 하였다. 모영茅胤은 “기는 수명을 늘려 주는 약이며, 마음은 기와 신을 부린다. 만약 기를 움직이는 주체¹⁾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곧 신선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동의보감 내경편, 기문)

기는 인간의 육체(정)와 정신(신)으로 변용되기 전에 존재했던, 원형(原形)으로서의 【 】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정·기·신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은 이 존재론적 근원(기)이 육체(정)와 정신(신)이라는 현상적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자연이 들어와 있는 셈이다. 한의학에선 그렇게 섞여 있는 것을 몸이라고 본다. 즉, 정기신이란 말은 자연과 섞여 있는 신체가 우리의 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정(精)은 육체, 신(神)은 정신, 기(氣)는 낮은 수준의 이질적 타자(자연)

- 독자적 순환 시스템의 필요성

자연은 나를 낳았지만 나는 자연과 완전히 섞여서는 안 되는 【 】 순환 시스템을 갖고

1) 기를 움직이는 주체는 자연이고 동시에 원형으로서의 자연을 발원으로 생성된 인간의 몸이기도 하다.

있어야 한다. 독자적인 순환계가 무너지면 몸이 흩어져 자연의 순환체계 안으로 흡수된다. 이것을 【 】이라 한다. (동의보감, 양생과 치유의 인문의학, 79쪽)

- 타자가 공존해야 하지만 낮은 수준의 이질성이어야

그런 점에서 원형으로서의 자연은 낯설긴 하지만 【 이질감 】이 최소화된 타자라 할 수 있다. 결국 몸이 정기신의 합체이고, 따라서 자연과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낮은 수준의 이질성을 가진 타자가 늘 내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몸은 자연이라는 타자가 내 안에 공존하고 있어야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는 육체(정)와 정신(신)뿐만 아니라 자연(기)도 함께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동의보감, 양생과 치유의 인문의학, 80쪽)

기의 현실태 - 몸 안으로 들어온 공기, 음식

자연 상태의 '기'로서의 공기와 음식 → 흡입과 섭취로 우리 몸에 들어옴 → 결국 기는 육체(정)와 정신(신)을 만드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원형의 질료

촉매²⁾로서의 기능

기는 몸에서 완전히 외부도 아닌 그렇다고 완전히 내부도 아닌 '중간항'으로 존재한다. 공기와 음식이라는 외부 기운은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이지만 외부의 존재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질적이다. 예컨대 곡식은 나무 껍질보다 훨씬 몸에 친숙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질성은 남아 있다. (...) 이런 이질적인 기운이 들어 오면 【 】가 일어난다. 이질적인 기운을 몸에 맞는 기운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다. 이것이 기가 중간항으로 존재하며 일으키는 촉매작용이다. (위의 책, 81쪽)

기의 이러한 기능은 공기와 음식 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몸에서 기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면역계를 담당하기도 하고, 감각 작용에 관여하기도 한다. 감정 또한 기로 해석한다.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는 원형이면서 자기촉매로서 존재한다. (위의 책, 81쪽)

천기와 지기

기는 **호흡의 뿌리이다(氣爲呼吸之根)** 『정리正理』에서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 자궁 안의 태아는 어머니의 호흡을 따라 숨을 쉬다가, 태어나 탯줄이 끊어지면 한 점의 신령한 기운이 배꼽 아래로 모이게 된다. 사람에게는 기氣가 가장 귀하니, 호흡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동의보감 내경편)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받아들인 공기가 천기(天氣)이다. 탯줄이 끊어지고 【 】 폐호흡을 시작하면 천기가 들어와 배꼽 아래의 하단전으로 모인다. 그것이 아기가 스스로 움직여 세상과 만나는 첫 기운이 된다. 천기는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 마주치게 되는 【 】 기운이다. 하지만 처음 만난 이 낯선 기운은 앞으로 아기가 겪게 될 운명적인 혹은 우발적인 사건들의 원형이 된다. 천기

2) 촉매 :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반응.

와의 첫 마주침에 의해 원형의 자연이 몸에 코드화되는 것이다. 이 시간적 코드를 분석해서 운명의 리듬을 탐구하는 학문을 명리학(命理學)이라고 한다. 흔히 사주명리라 불리는 이 학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폐의 첫 자발호흡을 통해 만나는 천기의 시간성이다. 그 첫 호흡에 새겨진 코드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물론 첫 호흡 이후의 호흡으로 들어오는 천기도 이질성을 띤다. 이것도 역시 새로운 시절의 기운을 담고 있는 원형으로서의 자연이다. 하지만 탄생 후 첫 호흡 때만큼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첫 호흡 이후의 호흡은 촉매로서 역할을 한다. 이 촉매는 처음 코드화된 원형, 즉 자연성이 드러나도록 돕려한다. 물론 때마다 다른 천기를 마시게 되므로 촉매 역시 매번 다른 기운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몸에 새겨진 원형으로서의 자연성(흔히 사주팔자라고 한다)은 새로운 촉매로 인해 조금씩 변주되며 드러난다. 호흡으로 들어온 기는 가장 현재적이다. 그래서 호흡은 매 순간 새로운 신체를 만든다. 천기(공기)는 이질적인 원형이며 중간항으로서의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동의보감, 양생과 치유의 인문의학, 82쪽)

사람은 곡식에서 기(氣)를 받는다. (황제내경 영추)

지기(地氣)는 음식물을 섭취하여 얻는다. 과거에는 음식물 하면 주로 땅에서 나는 곡식을 가리켰기 때문에 지기를 곡기(穀氣)라고도 한다. (...) 음식은 낫선 기운이지만 너무 이질적이진 않다. 인간은 독초나 돌을 먹고 살 수는 없다. 음식은 적당히 낫설고 적절하게 동기상응한다. 그래서 기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간항으로서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의보감, 양생과 치유의 인문의학, 83~84쪽)

기(氣)의 종류

	영기營氣	위기衛氣	종기宗氣	원기元氣(原氣)
생성 요소	곡기(穀氣)		청기(淸氣) + 곡기(穀氣)	곡기(穀氣) + 정기(精氣)
기능	전신의 영양 공급, 혈액을 화생	신체의 표면을 보호하여 외사의 침입 방어, 장부·기육·피모 등을 온양(溫養)함. 땀의 분비를 조절 (by 주리의 열고 닫음), 체온 유지	호흡 작용(언어·목소리와의 관련), 기혈 운행, 한온조절	인체의 생장, 발육, 생식 추진
운행	맥중으로 들어가 전신을 운행.	영기를 따라 운행. 낮에는 양분(陽分)에서, 밤에는 음분(陰分)에서 운행	흉중(기해)에 쌓인 종기는 한 갈래는 심장을 거쳐 경맥으로, 다른 한 갈래는 호흡으로	체내에서 혈·진액 등에 의지하여 삼초를 따라 오장부로 산포되어 모든 부위의 생리활동을 촉진

칠기(七氣)와 육기(六氣)

칠기는 기쁘고, 노하고, 슬프고, 생각이 많고, 근심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喜怒哀思悲驚]

편]을 말한다. 혹은 추위하고, 열이 나고, 원망하며, 성내고, 기뻐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동의보감 내경편)

사람에게는 칠정七情이 있는데, 칠정의 기(七氣)가 손상되면 병이 생긴다. 기가 멎치면 담痰이 생기고, 담이 성하면 기가 더욱 멎쳐진다. 이때 기를 고르게 하려면 반드시 담痰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동의보감 내경편)

감정이 동요하는 것을 칠기, 즉 ‘기’라고 표현한 것은 감정 역시 이질적이며 몸에서 어떤 촉매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이질적이라나 좀 이상하겠지만, 감정은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에 나의 정신이 쏠려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질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그런데 칠정의 촉매작용은 좀 과도하다. 완충은 덜 이루어지고 이질성은 더 증가된 탓이다. 대개 과도한 기운은 몸의 항상성을 해친다. 칠정도 그렇다. 칠정의 향진은 기의 속도와 리듬을 어지럽혀서 몸의 균형을 어긋나게 한다. (동의보감, 양생과 치유의 인문의학, 87~88쪽)

칠정과 함께 육기(六氣)도 몸을 상하게 한다. 육기란 풍한서습조화(風寒暑濕燥火), 즉 바람, 추위, 더위, 습함, 건조함, 열기를 말한다. 이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런데 면역계가 약하거나 육기가 몸에 너무 강하게 접촉하면 병리로 작용한다. 병증을 일으키는 육기를 육음(六淫)이라고도 하는데, 대개는 ‘사기(邪氣)’라고 부른다. (동의보감, 양생과 치유의 인문의학, 90쪽)

(2) 정(精)

잠재적 에너지

정은 몸의 근본이다(精爲身本) 『영추靈樞』에서는 “남녀의 신神이 서로 만나 하나의 형체(形)를 이룬다. 그 형체가 몸으로 완성되기 전에 항상 먼저 생기는 것이 있으니, 이를 일컬어 선천의 정精이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精은 몸의 근본이 된다.”(동의보감 내경편)

남녀의 신(神)은 부모의 욕망, 하나의 형체(形)는 잉태된 생명을 뜻한다. 형체가 몸으로 완성되기 전에 생기는 것을 정(精)이라 했으니, 정은 아직 구체적인 형태로 구성되기 전의 잠재적 에너지이다.

물(水)이라는 물질로서의 정

잠재적 에너지는 어떤 형태의 물질로 존재하는가? 크게는 육체라는 물질로 존재한다. 더 구체적인 물질로 말하자면, ‘물(水)’이라는 물질로 존재한다. 육체 역시 물(水)이 전화되어 종합된 형태다.

정은 【 】의 형태로 몸의 모든 조직에 존재한다. 세포액이기도 하고, 피의 원료가 되기도 하며, 눈물, 콧물, 오줌, 정액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좀 더 밀도가 높은 형태로는 뇌나 골수도 되며, 더 강력하게 응축하면 뼈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진액, 뇌, 골수, 뼈 등은 모두 물을 다루는 장부인 신장에 소속된다. (『동

신(神)은 사유, 지각, 감정 등 정신활동 전체를 의미한다. 신(神)은 양적 에너지로서 음의 에너지이자 잠재된 기운인 정(精)으로부터 나온다. 또한 신의 발현은 다시 정(精)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기(氣)다. 기는 정으로부터 신을 불러오는 주체이며, 신이 정(精)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때도 관여한다. 기는 낮은 이질성을 지닌 타자이며 자연이고 세계이다. 기는 공기, 음식, 인간관계, 기후, 공간 등의 외부 물질성이 몸과 애매하게 혼용되어 있는 중간항 혹은 사이의 차원에서 활동한다. 따라서 정과 신은 기와 언제나 섞여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정 기 혹은 신기라고 부른다.